

# 비즈니스 나눔

손상석 김민정 예진 예훈 예찬 가족 기도편지

## 감사 제목

- ◆ 저희가 진행했던 교차언어교육 프로젝트가 현지 단체를 통해 치앙마이 주 초등학교에 잘 안착되고 있는 점
- ◆ 치앙마이 교육대학에서 교차언어교육 워크숍을 열어달라고 현지 단체에 요청이 온 점
- ◆ 차량 등의 제공을 통해 보여준 주후원교회의 사랑에 감사
- ◆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의 행복한 재회에 감사
- ◆ 미국 달라스 국제대학원 교수와 공동 집필했던 논문이 마침내 학술지에 게재된 점

## 간구 제목

- ◆ 교차언어교육 프로젝트를 이어받은 현지 단체가 저희의 부재중에도 독립성과 창의력을 가지고 잘 감당하도록
- ◆ 양해각서 해지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현지 단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주어진 비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안식년 후에 교차언어교육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기관과 잘 연결되고 이를 통해 비자도 해결될 수 있도록

동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번 소식은 한국에서 전해드립니다.

### 안식관과 차량

저희는 지난 6월 1일에 귀국하여 안식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 중 상반기 6개월은 부산 학장동의 안식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안식관인데, 이를 통해한국으로 들어오는 선교사들을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시는 귀한 분입니다.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신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주후원 교회인 온천교회는 이번에 특별히 안식관 사용료를 대납하고 차량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쉽지 않는 교회 사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특별히 파송 선교사를 배려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위원회 그리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가족과의 재회



6월과 7월, 두 달 동안은 많이 변한 한국 사회에 새로이 적응하면서 가족들과 재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교회에 사역보고를 하거나 강연 등을 하기에는 체력이 아직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6월 1일 수요일에 귀국하자마자 그 주말에 장남 예훈이의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직 여독도 풀리지 않은 상태였지만 부산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운전해서 가볍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모가 없는 가운데 한국대학에 입학하고 휴학하고 군입대를 해서 이제 병장 진급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삶이 낯설고 익숙지 않았을 아들이 지난 모든 과정을 꿰뚫어 잘 견디고 적응해 내고 있어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9월 말이면 군복무를 마치고 저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니 그 시간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는 제주도에 효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장모님께서 칠순이셨는데 비록 1년 늦었지만 이를 기념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선교사로서 자식의 역할에 많이 부족하지만 늘 이해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장인 장모님께 감사와 죄송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세 누님들의 막내 환영 파티도 있었습니다. 둘째 누님이 머무는 함양에서 세 누님과 자형들이 함께 모여 지리산 돼지고기를 구워 먹으며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시간도 참 새로웠습니다.

### 막내를 데려다주고 이사도 하고

지난 8월 1일부터 17일까지는 저(손선교사) 혼자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막내 예찬이를 기숙사에 데려다 주고 또 기



- ◆ 부부가 안식년 기간 동안 탈진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사랑하도록
- ◆ 동역자와의 만남과 교회에 보고하는 시간이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도록
- ◆ 내년 재파송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가정의 후원 계정이 적자에서 흑자가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새로운 동역자와 동역교회가 안식년 기간 동안 충분히 더해지도록
- ◆ 한국, 영국, 그리고 태국에 흩어져 있는 세 자녀의 건강과 학업과 안전을 위해
- ◆ 예진이가 9월 대학원 졸업 후에 취업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좇아가도록

### 동역 안내

고신:042)622-8081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243-1  
지비티:031) 421-532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0 신한대뷰오 피스텔 406호

#### 후원계좌:

KEB 하나은행  
303-04-00016-809  
예금주: 손상석 김민정  
\*첫 입금후 지비티 재정담당자에게 전화(031 421-5324)나 이메일 (income@v2025.or.kr)을 주셔서 후원자등록을 하시면 연말정산 등의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개인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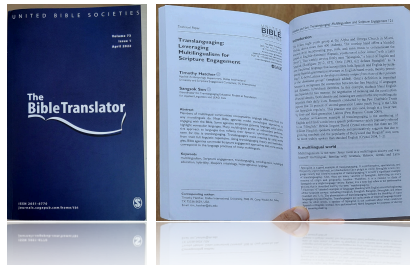
손선교사:010 77465527  
김선교사:010 58717746

존의 세간 살림을 보다 저렴한 창고로 이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탈진으로부터 잘 회복되고, 또 자신의 학교를 옮기지 않으려면 기숙사 생활이 유일한 선택이었던 것을 잘 알았던 막내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막 새학년이 시작되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스스로 할 일을 잘 챙기며 함께 지내는 형,누나들과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잘 적응해서 사회성과 독립성이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간 이사는 교회 청년들이 와서 하루종일 수고해 주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많이 고단했지만 모처럼 태국 교회 공동체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훈훈한 이삿날이었습니다. 조그만 픽업 트럭으로 총 6번 옮겼는데 마지막 짐을 내린 후 저녁 먹으러 식당으로 가는 길에 비가 억수 같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시원한 사랑도 느낄 수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 공동 집필 논문의 학술지 게재 및 교차언어설교



그동안 미국 달라스 국제 대학원의 성경활용 교수와 공동 집필한 논문이 성경번역 분야의 국제 학술지에 마침내 게재되었습니다. 단체 한 지도자는 이 논문이 교차언어가 성경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체 안팎에서 중요한 반향이 있을 것이라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평가가 현실화되어 다중 언어화 되어가는 세계 소수민족 공동체

들의 성경활용에 이번 논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귀국 직전에는 교차언어를 사용한 설교를 실습해 보는 소중한 기회도 가졌습니다. 청중이 자신의 모어와 공용어인 태국어를 모두 활용하여 설교 내용을 나누고 적용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졌습니다.



### 동역자와의 만남과 보고

이제 9월부터는 동역자 여러분들도 뵙고 인사 드리고 교회에도 보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저희의 전화 연락처(손선교사: 010 7746 5527, 김선교사: 010 5871 7746)를 전해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사역을 요약 정리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셔서 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곧 뵙기를 바라며.

저희는 세계 여러 소수 민족 언어로 번역되는 성경의 독자를 양성하기 위해 **교차언어교육**에 대한 연구개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언어교육**이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둘 이상의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교수법을 말합니다. 특히 **교차언어교육**은 인구이동과 도시화의 영향으로 **여러 소수 민족** 출신의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국가 공용어를 사용하는 교사가 아이들의 여러 언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도움을 줍니다. 소수민족 아이들이 받게 되는 양질의 교육은 학생들이 **공용어로 이미 번역된 성경과 모어로 번역되고 있는 성경을 함께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대학 진학과 양질의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소수민족교회의 경제적 자립**과 그들의 개인적 삶의 번영에도 도움을 줍니다. 교차언어교육은 점점 다중언어화 되어가는 소수민족을 위해 **성경번역과 번역된 성경의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에도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